

청렴 상식이 쑥쑥!

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

오른쪽 그림은 제주지검의 청렴 마스코트 '청콩이'(청렴의식을 콩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)입니다. 제주에서는 왜 '말채찍 모양'을 청렴 마스코트로 삼았을까요?



**조선 초기, '행동하는 청렴'이 무엇인지
몸소 보여준 청백리와 제주 백성들의 일화가 있었습니다.**

1470년부터 1473년까지 제주목사를 지낸 이약동(李約東, 1416 ~ 1493)선생은 재임하는 동안 아전들의 전횡을 근절하고 세금과 공물을 줄여 백성들의 괴로움을 덜어 주는 등 선정을 베풀었습니다.

이에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송덕비를 세우려 하였지만 그는 이를 엄히 막았으며, 선물을 받쳐도 받지 않았습니다.

다만 백성들이 만들어 올린 말채찍 하나는 차마 물리칠 수 없어 사냥을 나갈때 항상 사용했다고 합니다.

시간은 흘러 임기가 끝나고 제주도를 떠나게 되자 그는 백성들에게 받은 말채찍은 가지고 갈 수 없다하여 벽에 걸어두고 떠났습니다.

**"백성들이 제주목사에게 바친 것이니,
이것은 후임 제주목사가 써야한다"**

그 후 말채찍은 목사가 정사를 다스리는 곳에 걸려 후임 목사들이 그의 선정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, 후손들은 말채찍이 다 닳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림으로 벽에 그려두어 그를 기억했다고 합니다.



한라산 정상에서 울리던 산신제로 인해 백성들이 얼어죽는 등 고통이 이어지자 이약동 목사가 한라산 조임으로 제단을 옮겨 만든 산전단.
위 사진은 산전단에 있는 [이약동 목사의 공덕비]

**청렴 사회는
구성원 하나하나의
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.
특히 공직자인 우리 자신의
실천은 더욱
중요하다는 것을 알고
청렴한 마음가짐으로
자신을 잘 다스리는
생활을 해야겠습니다.**

상식이 쑥쑥! 선물이 팡팡!

퀴즈 이벤트



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~!

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이 다음날 아침 뉴욕타임즈 1면에 머리 기사로 보도된다 해도 떳떳한지 생각해 보고, 그 답이 'No'라면 실천에 옮기지 말라는 윤리 원칙은 무엇일까요?

- ① 양심 법칙 ② 뉴욕타임즈 법칙 ③ 회고 법칙

※ 힌트 : Monthly청렴 2020년 6월호를 참고하세요~

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**10명**을 추첨하여

문화상품권(2만원 상당)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.

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
★ 응모기간 : 2020. 7. 20.까지

★ 응모방법 : 700spo69a@spo.go.kr

지난 6월 정답은 ③ **참고인증지 재기**였습니다.

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^^



축!
당첨



민원인의 목소리

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

담당직원이 검수과정에서 한번에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았을텐데 대중 알려주니까 복사를 2-3번 정도 다시해야 되고 종이 낭비에 재판일정도 늦어져서 많이 불편했습니다.

바쁜 업무 속 여러 민원을 처리하며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. 하지만 배려와 친절이 담긴 한번의 설명은 민원인과 담당자 자신의 노고를 덜어준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.

전화 통화 후 방문하였는데, 자세한 설명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부터 수입인지를 미리 구매하여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 까지 미리 안내해주어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.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.

성남지청 열람등사(재판중) 담당자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. ㄷ

